

## 세계도시의 녹색비전

### -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그랑 파리(Grand Paris) 프로젝트 -

국토연구원 김영표 부원장, 이범현 책임연구원

-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 대도시들에 대한 파리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리수도권의 미래 발전모습과 발전전략·거버넌스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'그랑 파리(Grand Paris) 프로젝트'를 추진
  - 국제공모를 통해 유명 건축가 10개 팀을 선정하고, 교토의정서 이후 2030년까지 파리대도시권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안서 제출을 요구
  - 신설된 '수도권개발 차관' 주도로 파리수도권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수립
  - 지방자치단체 개혁 보고서에서 파리수도권 행정체제 개편을 검토
- 사르코지 대통령은 건축가팀들의 제안 내용을 반영하고, 수도권개발 차관의 전략비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9년 4월 29일 그랑 파리 프로젝트 최종안을 발표
  - 총 130km의 파리외곽 지하철망 건설, 샤클레(Saclay)·부르제(Bourget)·에브리(Evry) 등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건설, 파리의 항만기능 회복을 위한 파리-르아브르축 개발, 그 외 주택 및 도시정책을 아우르는 총 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
- 그랑 파리 프로젝트는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의 미래 녹색비전과 실현방안, 토론을 통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방안, 대도시권의 이미지 제고방안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줌
  - 건축 및 도시계획 전문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도출하고, 세미나, 공개토론, 전시회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
  - 프랑스의 이번 대규모 수도권 투자계획은 세계화 시대의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 간 조화 가능성을 보여줌

## 1. 21세기 파리대도시권 모습에 대한 국제공모 추진

### ● 추진경위

- 사르코지(Nicolas Sarkozy) 대통령은 2007년 9월 건축박물관 준공식 행사에서 유럽 대도시들에 대한 파리대도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20~40년 동안 파리를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에 대한 “강력하고, 독창적이며, 현실적인”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
  - 미테랑 대통령이 그랑 프로제(Grand Projet)를 통해 라데팡스 대 개선문, 루브르 박물관 유리피라미드, 오르세 박물관 등 오늘날 파리와 프랑스를 대표하는 훌륭한 건축물들을 남긴 것처럼 사르코지 대통령도 파리에 기념비적 건축사업 추진을 희망
  - “건축을 정책의 중심에 다시 놓고” 건축가들이 파리의 인간적인 차원을 유지하면서도 파리를 변화시키고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줄 것을 기대

- 중앙정부, 파리지, 일드프랑스 레지옹, 코뮌들의 장으로 구성된 국제공모추진위원회에서 총 38개의 국내외 응모팀 중 최종 10개 팀을 선정(2008년 5월)

- 선정기준은 건축·도시계획·사회학·경제학·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되, 팀장은 반드시 건축가이어야 함

- 10개 팀은 21세기 파리의 비전을 ‘녹색과 휴먼’으로 제시하고, ‘교토의정서 이후의 21세기 대도시권’(2008년 12월), ‘파리대도시권

에 대한 전망적 진단’(2009년 3월) 등 최종 제안서 제출

- 국제공모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의 차원을 넘어 교토의정서 이후 21세기의 대도시권과 파리대도시권 개발에 대한 전략적 지향점을 도출하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함
- 팀별 제안서는 현재 건축박물관에 전시 중(2009.4.29~11.22)이며, 국립건축학교 주도로 세계 대도시권에 대한 학술행사 개최 등 추진

【표】 선정된 건축가팀

- Christian de Portzamparc (프랑스)
- Jean Nouvel (프랑스)
- Yves Lion (프랑스)
- Roland Castro (프랑스)
- Antoine Grumbach (프랑스)
- Djamel Klouche (프랑스)
- Richard Rogers (영국)
- MVRDV (네덜란드)
- Finn Geipel (독일/프랑스)
- Bernardo Secchi (이탈리아)

## ● 건축가들의 주요 제안 요약

- 파리의 미래 모습에 대한 건축가들의 제안은 현실에 바탕을 두되, 미래 도시발전 방향에 대한 철학적 내용과 구체적 제안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교통, 생태, 사회통합, 도시화 지역의 고밀화, 도시재생 등의 중요성을 강조

### ■ Jean Nouvel팀의 제안

- 현재의 파리는 매우 평면적이기 때문에 고밀·고층건축물이 필요하며, 젠빌리에(Genevilliers) 등에 고층건축물을 세워 복합용도의 수직적 에코도시를 지향
- 기존 교통망을 정비하여 샤킨레(Chatelet)역과 북역이 하던 역할을 12개 고속철도역이 수행토록 개편하고 이 고속철도역들을 15개 지하철역과 연계

### ■ Christian de Portzamparc팀의 제안

-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시스템이므로 대도시권 규모의 기능적 공간과 물리적 근린공간의 연계성 확보 강조
- 현재의 북역과 동역을 통합하는 유럽의 거점역사를 오베르빌리에(Aubervilliers)에 건립하고 파리도심과 녹색축으로 연결되는 지역 내 최대 업무지구로 개발

### ■ Richard Rodgers팀의 제안

- 현재의 파리 중심부와 주변부가 매우 분리되어 있으므로, 21세기의 그랑 파리를 접근성과 고용, 주택, 이동성, 아름다움을 보장하는 모범적 도시로 구상
- 지하에는 상·하수도 네트워크, 지상에는 녹색회랑, 레저공간, 녹색 교통축을 조성  
- 북역에서 생드니(Saint-Denis)까지의 7km 거리를 공원으로 연결

### ■ Rolan Castro팀의 제안

- 그랑 파리는 지리적으로 8개의 소지역으로 나누어진 다핵적 구조를 가지며, 각각의 소지역 중심에는 문화와 교류, 과학의 상징적 거점 존재
- 도심과 교외지역의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3개의 외곽 연결 트램웨이 노선 건설, 고속지하철 건설 등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리적·업무적 이동성을 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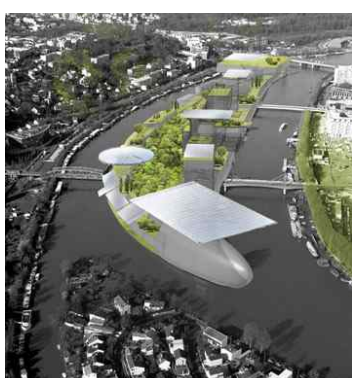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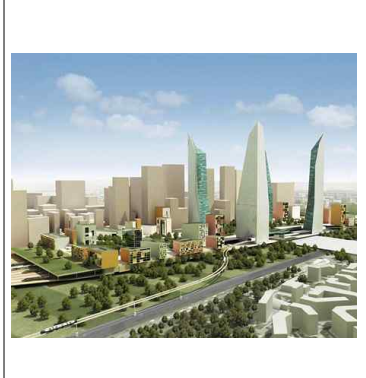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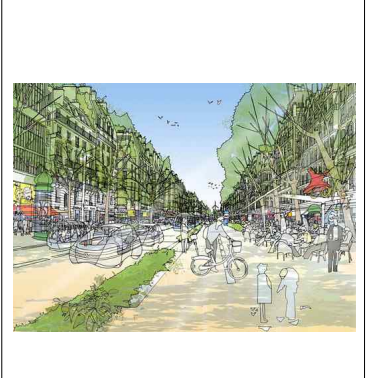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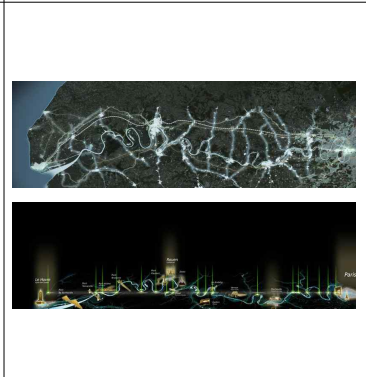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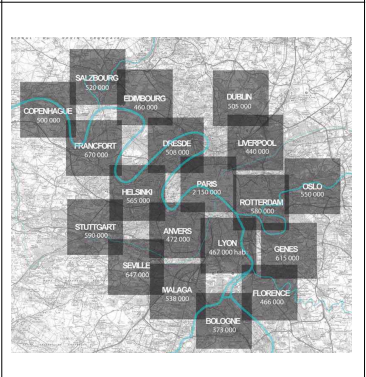
## ■ Antoine Grumbach팀의 제안

- 뉴욕, 상하이 등 세계 대도시권들이 강 하구에 위치한 항만도시임에 반해 내륙 도시인 파리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센강을 따라 파리를 바다까지 확대
- 센강을 따라 선형으로 그랑 파리의 성장축을 설정
  - 대서양변의 항구도시 르아브르(Le Havre)와 파리를 잇는 고속철도 노선을 신설하고 현재 건설 중인 센-노르(Seine-Nord) 운하와 센강을 연계

## ■ Yves Lion팀의 제안

- 파리대도시권의 지리적 범위가 현 거버넌스 시스템 범역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인구 50만 규모의 20개 도시권을 육성
- 숲의 면적을 두 배(20만ha)로 늘리고 이동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 시키고 토지이용을 저해하는 도시계획제도 개편

【그림】 제안예시도(사례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<p>Jean Nouvel</p>  |  <p>Christian de Portzamparc</p> |  <p>Richard Rodgers</p> |
|  <p>Rolan Castro</p> |  <p>Antoine Grumbach</p>         |  <p>Yves Lion</p>       |

## 2. 그랑 파리 프로젝트 최종안

### ●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제공모와 함께 두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 추진

- 수도권개발 차관 자리를 신설하고, 2008년 3월에 신임차관인 크리스티앙 블랑(Christian Blanc)에게 향후 30년간의 파리수도권 전략계획 수립을 지시

- 전략계획은 바이오·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수준을 갖는 8개 경제거점 개발사업과 총 130km의 도시교통망 구축사업을 핵심으로 함

- 프랑스 지방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보고서 에두아르 발라뒤르(Edouard Balladur)에서 파리수도권의 개편을 제안

- 파리와 주변 3개 데파르트망을 통합하여 특별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안이 제안되었으나 이번 그랑 파리 프로젝트에서는 보류됨
- 사르코지 대통령의 그랑 파리 프로젝트와는 별도로, 파리시장 베르트랑 들라노에(Bertrand Delanoë)의 주도로 파리와 인근의 200여 개 코뮌이 조합을 결성하고 코뮌 간 재정을 공유하는 안이 검토 중임

### ● 그랑 파리 프로젝트 추진내용

- 수도권개발 차관의 전략계획과 건축가팀들의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월 29일 발표한 그랑 파리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혁신과 경제활동인구의 증대를 통해 파리수도권의 경제개발 촉진
  - 20년 동안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
- 파리 외곽을 환상으로 감싸며, 고속철도역·공항을 연결하는 130km의 저탄소 지하철망을 신규로 건설하고 기존 지하철노선을 정비
- 샹클레(Saclay)지역에 생활환경이 우수한 세계최대 과학기술단지 건설
  - 파리 제11대학 캠퍼스, 엔지니어학교, 저탄소차량연구소 등을 연계한 클러스터 개발
- 파리-라데팡스축의 금융기능 강화, 부르제(Bourget)를 항공·업무관광 거점화
- 파리-르아브르축 개발의 핵심사업으로 센-와즈(Seine-Oise)강 합류점 아셰르(Achères)에 항만을 설치하고 물류해양클러스터 개발
- 도시녹지조성과 에너지 저감 건축기술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

- 하천과 녹지벨트를 중심으로 지역 간 연계축을 구축하여 생물학적 다양성을 확보
  - 연간 주택 공급량을 두 배(7만~7만 5천 호)로 늘리고 수요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
  - 고밀개발과 건축가능지 확대를 위해 도시계획 관련 법률 개편에 착수
- 사업기간은 10년(2012년 착공)이며 전체 사업비는 350억 유로(60조 원)에 이릅니다
  - 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 10월에 특별법을 입안할 예정이며, 10개 건축가팀을 단일팀화하고, 2010년에 세계도시포럼을 개최하여 도시 간 경험과 미래 비전을 공유토록 할 계획

### 3.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

-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녹색성장과 녹색도시 개념이 국토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
  - 현재 제정 중에 있는 프랑스형 녹색성장법 ‘그르넬(Grenelle) 1법’의 제1편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 소비 감축, 도시계획, 교통과 물류 등을 강조
- 건축가 중심으로 추진된 21세기 파리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국제지명공모는 작품의 우수성과 더불어 추진방식에서도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
  - 제시된 녹색도시의 개념과 쟁점은 우리나라 도시들에도 시사점이 높음
  -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토론회, 전시회 등 일련의 과정이 전문가와 국민 모두에게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, 우리나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추진하는 ‘수변도시비전 공모’도 녹색·수변도시에 대한 적극적 논의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
- 프랑스는 그동안 강력한 지방분산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 수도권에 총 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교통인프라, 첨단연구산업단지 건설을 결정
  - 과거 국토불균형발전의 대명사였던 프랑스는 9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지방발전을 이루었으며, 현재 사르코지 정부는 파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프랑스 전체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
  -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 및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조화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함

● 국토연구원 김영표 부원장 (ypkim@krihs.re.kr, 031-380-0112)

● 국토연구원 녹색국토·도시연구본부 이범헌 책임연구원 (bhlee@krihs.re.kr, 031-380-0319)